제138호
발 행 일 : 서기 2018년 2월 1일
창 간 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 행 인 : 김 석 한
편 집 인 : 김 상 근
인 쇄 인 : 김 원 희
발 행 처 : 안 동 김 씨 대 종 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02435
홈페이지 : andongkimc.kr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황금개의 해입니다.
무술년의 무는 땅이나 큰산을 뜻하고 색으로는 황금색을 띄며, 술은 개띠를 의미하기 때문에 2018년을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며 예로부터 무가 들어가는 해는 항상 국운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무술년(戊戌年)을 안동김씨대종회(安東金氏大宗會) 발전(發展)의 시금석(試金石)으로 삼아 더 강한 책임감(責任感)과 실천력(實踐力)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질주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선조님에 대한 위선사업(爲先事業)으로 충렬공 묘소 사초 및 묘역 정화사업과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묘소 사초 및 묘역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충렬공 유허비각 보수공사를 완공하고 500여명의 참사객(參祀客)이 자리를 함께하여 추향 세일사를 봉향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또 미래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한 많은 종친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어, 사초헌성금 8천여만원을 헌납하여 주셨고 안동회관 건립 헌성금을 1억원이상 모금 해 주셨으며 회관건립성금은 오늘도 계속 답지(遝至)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성금액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전 종친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삼한갑족(三韓甲族)인 안동김씨대종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동김씨대종회의 미래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올해 몇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자손만대에 전수(傳授)해야 할 인터넷족보의 완벽한 구축(構築)을 위하여 진력(盡力) 하겠습니다.
둘째, 忠烈公 上系6先祖님 추모영단(追慕靈壇) 건립을 적극추진하고 물계서원(勿溪書院) 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동회관 구입 헌성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회관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후된 대종회관(大宗會館) 보수공사를 하여 깨끗한 회관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종회의 행사 및 각종 회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성대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여섯째, 대종회의 모든 업무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김씨 종친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단단한 각오와 의지로 숭조상문(崇祖尙門)의 초석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동김씨 종친과 임원 여러분의 지도(指導)와 성원(聲援)을 기대합니다.
황금개띠 새해에 새로이 품은 꿈들을 모두 달성하셔서 일신과 가정과 문중의 발전 이루시기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일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 錫 漢

공 고

안동김씨대종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2018년도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대종회 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 3.22(목) 오전11:00
* 장소: 백범 김구 기념관 (02)799-3421
* 참석 회비: 30,000원

상정안건

1. 2017년도 수입 · 지출 결산보고
2. 2018년도 예산안 심의
3. 2018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4. 기타 상정안건 심의

백범김구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02-799-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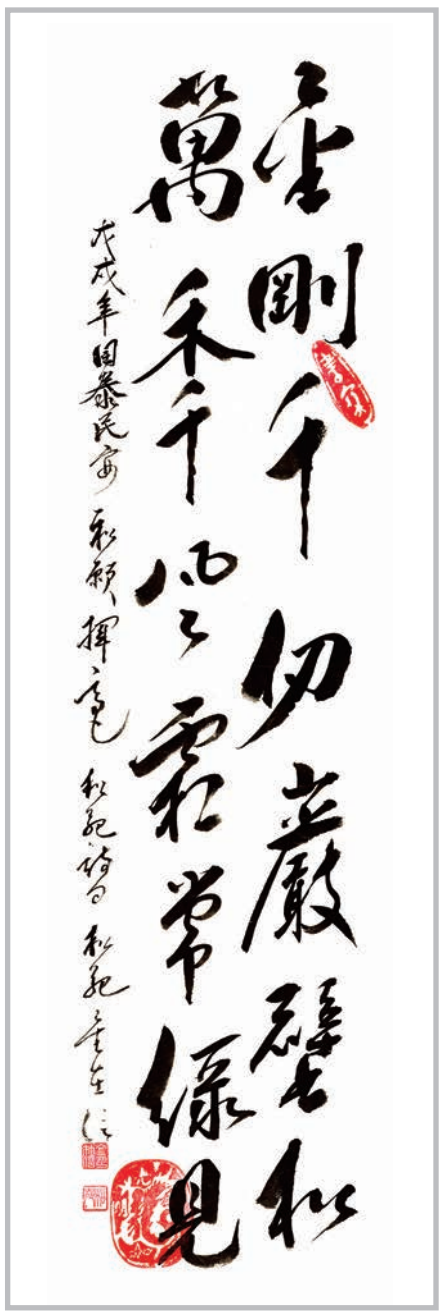
◐ 지하철
1. 효창공원앞역(6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2. 공덕역(5,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6번 출구, 공덕지구대 앞에서 마포 17번 버스 이용
3. 숙대입구역(4호선) 2번 출구, 남영우체국에서 400번 버스 이용,

◐ 버 스
1. 마포 17번(공덕역)
2. 400번(종로, 서울역, 숙대입구역), 2016번(한남동, 이촌동, 효창공원앞역), 용산 04(서부역)
3. 110A, B(신촌, 이태원, 삼각지), 740번(신촌, 강남역)

謹賀新年

사진 / 무술년 새아침

• 성　명 : 김성묵 (金誠默) 호 : 필봉(筆峰
• 출생지 : 경남 산청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2길 19, 111-1005 (팔달동 두산위브 2001 아파트)
• 약　력 : 전쟁문학 시인 등단(2003),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2012)



戊戌年 揮毫

金剛千仞巖壁松 萬季風箱常綠見

금 강 천 인 암 벽 송　만 년 풍 상 상 록 현

금강산 천길 암벽에 한구루 소나무　만년풍상에도 늘 푸르름만 보여주네

무술년 한해에도 늘 푸르고 젊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雲菴 金在信 作家 略歷

- 金榮奎先生 漢學傳受
- 大韓民國綜合美術大展 特選2回
- 韓國書畫藝術大展 特選4回 最優秀賞 招待作家
- 書藝展 世宗文化會館 全館展示　KBS1NV放映
- 成均館 儒學大學院 高級科程 修了
- 大佛字300佛 完成
- 直指心體要節 204點 篆書體 完成
- 八道名勝詩600點 名詩全書1100點 屛風27點 製作
- 韓國救國功臣碑文 語錄碑文 愛國詩 名鑑94本 影幀爲 侍奉
- 漢學書籍18種 書冊全文完畢[6年3個月間]
- 秦始皇前後時代篆書38體 屛風製作
- 甲骨文 又 最古代文字 般若心經屛風製作 外 重要作品 多數
- 甲骨文字581字金粉製作
- 李白 杜甫 生涯 漢詩 全文 篆書體 完成
- 雲菴書苑 運營
- 忠烈公23世孫(郡事公派)
- 忠北 陰城郡 陰城邑 水晶路22番地　011-366-9837

◈ 2018년 1/4분기 대종회 행사일정 ◈

◐ 회장단회의

일　　시 : 2018년 2월 27일(화요일) 오전11:00
장　　소 : 대종회관 회의실
참석대상 : 대종회 회장단
안　　건 : 안동김씨대종회 회칙 규정에 의한 토의안건

◐ 이사회의

일　　시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장　　소 :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참석대상 : 대종회 이사. 고문포함. 회장단 전원
안　　건 : 년간 세입세출. 2018년도 예산안 검토
　　기타 회칙에 규정한 안건토의

◐ 정기총회

일　　시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11:00
장　　소 :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참석대상 : 안동김씨 대종회 회원 전원
안　　건 : 2017년도 결산안 2018년도 예산안
　　기타 회칙에 규정된 안건
참석회비 : 3만원

謹賀新年

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聲援에 感謝드립니다. 새해에도 大宗會 發展을 위하여 열심히 努力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리며 우리 安東金氏 50만 宗親과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充滿 하시길 祈願합니다.

安東金氏大宗會 任員 一同

顧問

(密)榮應 (郡)在化 (典)在旭 (典)大敎 (副)圭章(在) (文)在承 (文)在湨 (文)琮會 (文)光道(泰)(文)秀吉 (安)在德 (都)昌會 (都)會秀(會) (都)熙允(泰) (都)元重(植) (都)榮福(泰) (大)京宗(會) (大)泰植 (提)永黙 (提)相祚(在) (提)相天(在) (提)南應(會) (提)俊會 (提)泰完 (按)觀黙 (按)在澤 (按)聖會 (按)泰龍 (按)泰文 (按)春植 (翼)在寬 (翼)在瑢 (翼)在勳 (翼)基成(在) (翼)善會 (翼)泰英 (翼)容大 (翼)花子 (容) (書)在峻 (書)詳浩(植) (正)洙鎭(泰) (正)元植

任員

名譽會長　(都)鳳會

會　　長　(翼)錫漢(在)

副 會 長　派宗會長
(郡)重黙 (按)榮萬 (密)在英 (開)履暻(植) (郡)鴻洙(泰) (典)興植 (副)元鎬(會) (文)榮煥 (安)洪基(泰) (都)在洙 (大)燦會 (提)天應 (判)奉善(泰) (按)璇會 (翼)在永 (書)喆浩(植) (正)泰石

地域宗親會長
(翼)東洙(植) (翼)海壽(會) (翼)正黙 (郡)成黙 (翼)在男 (翼)泰吉 (都)珽 (提)泰煜 (按)亨南(容)

大宗會長 推薦
(提)泰瑄 (典)春敎 (翼)康植 (典)官敎

監　　事　(文)潤萬(會) (按)亨南(容)

理　　事　(密)在敎 (開)雄善(容) (都)俊黙 (郡)張會 (郡)重會 (郡)在夏 (郡)在二 (典)泰振 (典)龍雨 (副)鍾大(在) (副)圭世(在) (副)昌植(在) (副)泰亨 (副)成煥(黙) (文)榮潤 (文)亨默 (文)臣黙 (文)容九 (安)鳳基(泰) (都)時大(在) (都)逭中(植) (大)泰權 (提)在喆 (提)相基(在) (提)貞應(會) (提)奎喆(泰) (提)泰晧 (提)瀚植 (提)雲澈 (提)容恒 (判)奉國(泰) (按)在玑 (按)在鴻 (按)在晟 (按)興會 (按)辰會 (按)崙會 (按)泰琓 (按)泰永 (按)贊植 (按)容元 (按)容周 (翼)榮宗 (翼)太圭(默) (翼)允黙 (翼)在湜 (翼)在源 (翼)在澤 (翼)晟會 (翼)聖會 (翼)榮秀(泰) (翼)根植 (翼)英桓(植) (翼)永植 (翼)容世 (翼)容黙 (書)暾永(會) (書)圭銀(泰) (正)泰仁 (郡)在九 (典)仁敎 (按)泰善 (翼)浩植 (都)熙勳(泰) (按)淳植 (翼)正黙 (文)洙吉(泰) (典)憲德(容) (典)龍敎 (典)在淸 (典)泰義 (翼)泰成 (按)辰姬(泰) (翼)鐘會 (提)章應(會) (都)一秀(會) (都)大會 (都)運中(植) (提)奉會 (提)龍植 (提)雲仙 (按)炫秀(泰) (按)根植

事務總長　(提)相根　事務副總長 (郡)泰 榮　常任有司 (都)大會

안동김씨 전국 현종 여러분께 올리는 인사의 말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7 丁酉년은 지나갔습니다. 처음을 알 수 없는 인생사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2018 戊戌년은 우리의 품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올 한해도 더 복된 가정 그리고 더 훌륭한 씨족으로 발전되기를 바라시는 전국 안동김씨 현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늘 웃는 날이 많은 즐거운 나날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무술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와 조국 광복 운동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의 가와사키 철공소에서 15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유산탱크 청소 노동일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의 노동자들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밥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답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신문화와 산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시고 남다른 삶을 살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어른의 회고록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책 속에 담겨진 한토막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저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여 소개해 올립니다.

"나는 늘 배가 고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을 위해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진정으로 피땀 흘려 일했는가? 나를 위했는가. 공적인 일을 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대할 때마다 '너를 먹고 어제보다 더 빛나고 공적인 일을 해줄께' 하면 밥이 나를 보고 웃으며 좋아 했습니다.

그럴때 밥먹는 시간은 무척이나 신비롭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었으니 하루 두 끼를 온전히 찾아 먹는 날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고통은 실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플때에는 밥 한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밥 한알이 온 신경을 자극 할 수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배가 고프면 눈물이 쏟아지게 밥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그립습니다. 배가 부를 때에는 세계가 큰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밥 한 알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밥 한알의 가치가 그렇게 큽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과거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선배 선조님들의 공덕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유년을 아쉽게 보내고 무술년 또 한해를 마지 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종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 또 찾아 우리의 근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한 일가 친척 지인으로서 보다 행복한 삶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여러분. 올 한해도 '석한 대종회장'님을 중심으로 더 잘되는 우리 안동김씨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 계시는 동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화목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판서공종회장 중묵 –

심기일전 대종회 발전

정유년이 가고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정유년은 정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하였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핵전쟁이 날까 모든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한해를 보냈고, 나라 안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탄핵구속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여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도 봉회 회장이 6년간 연임하면서 가문에 영원히 보존될 대동보를 발간하였고, 종인들이 추대한 석한 회장은 부임 하자마자 중시조이신 충렬공 할아버지와 냉평국대부인 죽주 박씨할머니의 묘역을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시켰습니다.

안동김씨 종인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석한 대종회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쳐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밀어주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종회발전을 위한 석한회장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모든 종인들은 일치단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모든 일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못 했다고 공격하고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반발하면 조직이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최측에서는 사기가 떨어지고 하고저 하는 의지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

새해 무술년에는 안동김씨 대종회 뿐만 아니라 각 지파 및 지역 종친회(또는 종중)가 더욱 보람있고 발전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고 종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다른 종중의 모범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종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소원성취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문영공종회장 영만 –

인터넷족보 세상에서도 으뜸을 달릴 2018년 안동김씨 대종회를 상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띠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70만 안동김씨 종인과 가정마다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 우리는 '파이팅 안동김씨 2017'이었습니다.

첫째 수년간 공 들인 대동보를 완성해 배포했고, 둘째 지구촌에 안동김씨를 알리는 자리도 기획 됐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참가한 '충렬공 시향'이 그것인데, 시제도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셋째 젊은 리더 석한대종회장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회장의 강한 열정과 추진력은 벌써부터 큰 희망과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족보의 원년입니다.

인터넷족보 세상에서도 으뜸을 달릴 2018년 안동김씨 대종회를 상상해 봅니다.

– 개성윤공파회장 이경 –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을 맞이해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종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金錫漢 대종회장님과 집행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선조님의 위선사업으로 안동 충렬공 중시조 고 · 비위 묘역정화사업과 각종 행사 등을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종친님들의 열과 성으로 이룩한 쾌거이며, 우리 대종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친회의 목적은 돌아가신 선조님들의 얼을 거울삼아 조상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빛나는 선조님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 받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젊으신 종친들이 많이 참가하여 우리 安金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장려와 조언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 됩니다.
이제 우리 대종회는 새롭고 역동적인 지도부가 들어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성숙하고 발전하는 대종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安金의 명예가 한층 드높아지는 무술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종친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군사공파회장 홍수 –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찬란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 밝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찬란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동김씨 전서공파 종친회 회장 김 흥식 인사드립니다. 戊戌年 좌우명 淸思健生(생각은 맑고 삶은 건강하게) 작년 한해는 충렬공 중시조 제향에 안동김씨 제례문화를 통하여 종친의 화합과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손님을 초청 우리 가문의 유풍과 정체성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를 전파하던 순간은 종친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감동스러웠던 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人無道德 禽獸社會 (사람이 도덕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는 안동김씨 가문의 유풍을 진작시키고 오늘날 이 시대에 부족한 정신문화를 정제된 정신으로 선도해 나아 갈 수 있는 종친회 한분 한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 전서공파종회장 흥식 –

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希望찬 戊戌年 먼 동이 밝아 왔습니다.
지난 丁酉年은 多事多難했던 한해였습니다.
6년 동안 苦生하시고 乙未 大同譜 編纂 등 어렵고 힘든 事業에 큰 足跡을 남기신 前任 鳳會 會長님의 勞苦에 感謝를 드리며, 强力한 推進力을 지니시고 多數의 宗親들로부터 推薦을 받아 大宗會 새로운 會長으로 錫漢 會長님이 就任하셨습니다.
이번 大宗會長 選出에 있어서 全 宗親들의 團結된 모습은 매우 感動的 이었습니다. 무릇 大.小規模의 어떠한 團體에서도 새로운 長을 選出할 경우 構成員들간 葛藤과 反目이 있기 마련이지만 금번 2017.定期總會에서 우리 安東金 門中에서는 많은 宗親들께서 별다른 競合과 分裂없이 滿場一致하여 새로운 會長으로 錫漢 會長님을 모시자고 하는 모습을 보며 새해에는 보다 많은 宗親들이 새 會長님을 中心으로 더욱 團合된 모습으로 우리 門中의 發展에 關心을 갖고 參與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宗親 어르신 새해 健康하시고 家內 平安하시기 바랍니다.

– 부사공파종회장 원호 –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종 여러분 가정의 찬란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종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온공께서 멀리 중국 남쪽 대리로 유배 가시던 중 현지에서 순국하신 후 고려는 멸망의 길을 걷고, 동료들은 고려를 위해 죽음으로 항거하거나, 조선개국에 적극적 참여로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살아계셔서 고려멸망과 조선개국을 겪으셨다면 어찌하셨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집에 있었다면 가족 품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과연 알아 줄 사람이 있을까? 지금 만리 밖에서 나랏일로 죽게 되어 중국 사람들도 내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족히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할아버님은 고려멸망의 현장에서도, 조선개국의 현장에서도 참여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명성에 비해 조명 받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올해는 문온공(척약재)께서 탄생하신지 68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당시 어깨를 나란히 한 동료들인,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 둔촌 이집 선생등과 함께 이루었던 학문적 시각과 정치적 시각을 새겨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착실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이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조금이나마 할아버님의 업적을 기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기원 할 뿐입니다. 현종 어려분께서도 많은 협조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종 여러분 가정의 찬란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문온공파회장 영환 –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다사 다난하였던 한 해가 마무리 되고 희망과 꿈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끄달려 다가오는 앞날에 매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반드시 참조하여 잘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앞 날에 밑그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은 서로 칭찬하고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활하여 지난 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의식의 개개인이 되어 전체를 이루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정공파회장 홍기 –

종친 모두가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가정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도 소리 없이 지나가고 무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동김씨 족친 여러분 무술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먼저 우리 훌륭하신 조상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마음씀씀이가 어찌 그리 너그러우셨는지요!
집을 지으셨어도 절대로 이웃집보다 더 높이 짓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과시하지 않으시고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사촌에 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에 기근이 들어 어려움에 처하면 곡간 문을 열어 곡식을 양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조상님들께서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니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무술년 한해는 김석한 대종회장님을 중심으로 안동김씨 종친 모두가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가정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도평의공파종회장 재수 –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정유년 파종회장에 선임 된지 벌써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모든 종친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호군공 파조님을 모시는 제실 보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 하였습니다.
새 단장에 조언하여 주신 파종회 집행부와 참여해 주신 모든 종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는 종친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화목을 바탕으로 더욱 도약된 파종회가 되도록 하고, 종중의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재산 증식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받들어 파종회와 대종회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모든 종친님과 가정에 선조님들의 음덕과 가호가 함께 하여 항상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대호군공파종회장 찬회 –

새해아침 소망과 기원을 빌어드립니다

새해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종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가꾸시길 바라면서. 올해는 황금개띠의 해로 개는 인류와 오랜 역사를 함께한 가장 친근하며 충직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가장 친근하고 믿음직한 우리의 종사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과 희망의 꿈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어맞이 않습니다.
지난해 11월23일 제학공 선조님외8위 세일사를 영모제에서 올리면서 파종회 임원 및 방계후손 참사자 8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종회의 발전을 만들기 위하여 현종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새해 인사에 가름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제학공파종회장 천응 –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송구영신(送舊迎新)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을 보내고 황금견의 희망찬 무술년을 맞아 안동김씨 전종문님들의 안위와 행복하심을 기원하며 종무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종무집행시 모호하였던 안동김씨종중의 윗사람에 대한 예의관례(禮儀慣例)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신 관묵(觀默) 대종회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이나 항렬이나 지위 따위가 자기보다 위인 사람을 손윗사람 이라고 하는데 나이 순위와 항렬순위가 상충(相衝)할때는 먼저 고령순 다음에 항렬순이고 동항렬에서는 고령순(先高齡後行列 同行列先高齡)) 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탄하는동안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함에 있다고 하는것이다.(心中不焉 視而視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修身 在正其心)라는 대학의 정심수신장(正心修身章)의 문구가 각성(覺醒)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문중발전과 예의 바른 후손 양성에 전력하시면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 안렴사공파종회장 선회 –

안동김씨 종친여러분!

다사다난했던 丁酉年을 무사히 보내고 희망에 찬 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선조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안동 충렬공 중시조 고 · 비위 묘역정화사업, 회곡동 유허비각 보수 등 굵직굵직한 사업과 각종 제향 등 종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대종회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종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종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安金의 미래는 젊은 청년종친들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安金에는 "안동김씨역사연구회(安史硏)" 같은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젊은 종친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고 당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종친들을 시향제는 물론 각종 종중 행사에 함께 참여시켜 가문의 역사를 알고, 조상에 감사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효정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들과 돈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족, 친지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익원공파에서 익원공 문집 발간을 하고자 인터넷 다음 까페에 "익원공김사형자료집"을 개설하여 자료를 수집중이오니 많은 자료와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종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물계서원 복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과 활동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현종제위 댁내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던 선조님들의 깊은 유지를 받들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 보존된 문헌과 남아 있는 유물을 연구하고 잘 관리하여 우리 문중의 문화가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영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익원공파종회장 재영 –

화목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자.

존경하는 안동김씨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종친여러댁내마다 승리의한해 성공의한해 영광의한해 보람의한해를 창조하시길 소망합니다.

금년한해를 첫째는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하겠습니다.

체력관리는 일생의 첫째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됩니다. 건강은 만복의 근원임을 마음에 새겨야하겠습니다.

둘째는 시간관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합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모두 시간의 창조적 활동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것은 시간의 자본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 시간이 분배되었고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남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신관리입니다. 마음은 나의 주인이요 정신은 인생의 사령탑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성공과 승리의 기념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무궁한 발전과 성공적인 댁내 발전으로 건강관리 시간관리 정신관리를 잘하여 번영하고 빛나는 한해를 축하드리며 새해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운관정공파종회장 철호 –

宗親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祈願합니다.

宗親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黃金 개띠 해라고 합니다. 宗親 여러분 가정에 黃金이 쌓이고 祝福이 함께 하시길 祈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우리 대종회에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忠烈公(諱:方慶) 탄신 800주년 기념비 제막식, 忠烈公 유허비각 보수공사와 그리고 忠烈公묘 사초 및 묘역 정화공사등 많은 수고를 하신 김석한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대종회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며 우정, 사랑,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한 葛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葛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疏通하며 協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宗親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疏通하며 喜怒哀樂을 함께하며 宗親님들의 安慰를 생각 하겠습니다. 모쪼록 宗親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祈願합니다.

– 정의공파종회장 태석 –

2018년도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 신년회 개최

▲김영환회장의 신년인사

2018년 안동김씨학술연구회(회장 김영환) 신년회가 01월19일(금) 교대역 인근 설렁탕집 푸주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정회원 40명 중 강식(익), 광문(군), 동선(익), 발용(군), 수목(익), 승아(익), 신묵(문), 영수(익), 영환(문), 용주(안), 우식(익), 우회(도), 윤만(문), 은회(익), 재영(익), 재용(익), 진회(밀), 진회(안), 태신(익), 태영(군), 태우(군), 태철(익), 현수(안) 등 23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2017년도에 안사연은 1/4분기 답사[17. 2. 4.]를 유연재, 동고공 부자 이가서법, '돌에 새긴 명문(銘文)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광주 일원을 답사하였고, 2/4분기 답사[17. 6.10.~6.11.(1박2일)]는 '강양(江陽)에서 역사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남 합천, 산청, 함양 일원을 답사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안사연 카톡방을 개설하여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고, 당월 복달임 행사를 경기도 광주 벽수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3/4분기 답사[17.09.16.]는 '괴산 능촌에서 구국(救國)의 혼(魂)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북 괴산 능촌리 및 증평 율리 일원을 답사하였으며, 안사연 창립 17주년 기념행사[17.11.11.]를 서울 수서동 광평대군 묘역을 답사한 후 회식으로 친목과 우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월19일.(금) 안사연 신년회를 시작으로 1/4분기 답사는 18.03.24.(토) '양평 구정승골에서 과갈(瓜葛)의 인연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부용리 일원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구정승골에는 안동김씨 익원공 파조이신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사위이신 증좌의정 제정 신효창(申孝昌)선생, 낙애(金夢麟)행적 서문을 쓰신 이조판서 이의익(李宜翼)의 부친 증우의정 이종억(李宗億), 이종억의 9대조 증영의정 이민성(李民聖)과 그의 아들 영의정 한음 이덕형(李德馨), 제정공의 증손 판관 신승연(申承演)의 사위로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의 아버지인 증영의정 이수정(李守貞)과 교산 허균(許筠)과 안동김씨의 사위인 이사성(李士星)의 조부 영의정 동고 이준경, 좌의정 문정공 김질(金礩) 할아버님의 장인이신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판중추부사 충익공 김시양(金時讓) 할아버님의 사위인 대제학 민점(閔點)과 쌍둥이 형님 좌의정 민희(閔熙), 그리고 동생 우의정 민암(閔黯)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답사[18.05.19(토)~5/20(일) 1박2일]는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할아버님의 유배지인 대청도와 상락공 김흔(金忻) 할아버님의 유배지인 백령도를 탐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사연 정기답사에 종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토의안건은 (1)대청도, 백령도에 할아버님 유배지 표석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한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였고 (2)안사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3)향후 3/4분기 이후 답사지는 카톡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기사제공 : 안사연 총무 김윤만」

안렴사공파수도권종회 임원회의 겸 송년회 개최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는 2017년 12월 16일 오전 11시 충무로 4가에 소재한 수도권종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겸 송년모임를 갖었다. 추운 날씨에도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임원 및 종친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룬 가운데 회의를 개회 하였다.

진회 파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식순에 의하여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성회 부회장께서 참석 종친 소개를 하였다.

춘식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지난 4년 회장 재임을 회고하고 수도권종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시었다.

수도권종회 신임회장은 형남 (대종회 감사. 화산군)종친을 추천, 만장일치로 추대 하였다.

수락 인사말씀에 수도권종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 하겠다는 말씀과 종친어르신 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는 인사를 하였다 .

기타사항으로 사무국장(현수)이 모든 회원들께 회비를 미납하지 말고 납부 해 주실것을 부탁 하였다.

처음으로 참석하신 돈식(판교공 총무) 태성(목사공) 태웅(사용공) 종친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종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페회 후 충무갈비집에서 30여명의 종친어르신과 신임회장(형남)의 건배사와 수도권종회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을 하였다. 식사와 음료는 형남 회장님께서 찬조 하였다.

목사공(김포) 태성 종친이 사무실 조명을 LED 로 시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종회 재무는 범식(도정공)님이 임명되었다.

추운 날씨애도 참석하신 총친 어르신들께 감사에 말씀을 올림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유년)한해가 저물어 가는 끝자락에서 종친 어른들을 모시고 송년회를 하였습니다.

지난6월 을지로 3가에서 충무로 4가로 조금은 넓은 사무실로 이전을 하였고 파종회가 오창에서 충무로 사무실로 이전 하였씁니다.

파종회와 수도권 종회가 7월부터 동거를 하고 있씁니다. 안렴사공파 종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사제공/안렴사공파수도권종회 총무 김현수」

仁川宗親會 第40回 定期總會 盛了

2017.12.22(금)18:30 인천종친회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안 흑돈가 음식점에서 개최된 이날 회에 성묵(군)회장님 춘교(전) 명예회장님 부사공파종회장 원호님 대종회사무총장 상근님 등 종친 3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정유년 한해를 회고하며 인천종친회의 발전을 빌고 무술 신년의 덕담을 나누며 뜻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었다.
일년간 종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 4명에게 표장을 하고 성묵회장께서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회장 인사말씀과 대종회사무총장의 격려말씀 춘교 명예회장의 축하말씀이 있었다.
참석자 서명시에 추첨권을 교부하고 행운권을 추첨하여 축하선물을 증정하니 회의장 분위기가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웃음꽃이 피었다.행사를 기획한 집행부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
식사를 하며 일가로서 돈목의 정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천종친회 발전을 기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었다

提學公派 首都圈宗會 送年會 開催

2017.12.16.(토)오전11:00 종로3가 피카디리극장 6층 청수장에서 제학공파 수도권종회 2017년 정유년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올 겨울 들어 기온이 가장추운 쌀쌀한 날씨임에도 태욱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참석 하였다.
참석회원 등록 서명을 하고 식장에 착석하여 식순에 따라 송년회 개최선언을 하여 송년회가 시작되었다.
국민의례, 참석회원 인사와 본인 소개를 하고 화장님 인사말씀으로 추운 날씨에도 참석 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을 마무리하며 무술년 새해에는 수도권종회의 발전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계셨다.
참석자 전원 단체 기념촬영을 끝내고 준비된 음식을 들며 회원간 담소로 즐거운 시간을 갖었다.
식사중 대종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 및 스마트폰 호환 인터넷족보 수단 및 오탈자 교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의 시간도 갖었다.
참석자 모두가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송년의 자리를 아쉬워하며 오후2:00 송년모임을 종료하였다.

竹溪公宗會. 奉事公宗會. 楊口公宗會. 2018년 정기총회 盛了

2018년도 竹溪公宗會.奉事公宗會.楊口公宗會(會長 金相根) 정기총회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광화문식당(구진양곰탕) 음식점에서 2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11시부터 開會된 회의에서 相根會長 인사말씀 후 雲澈총무의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인터넷족보수단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었다.
提學公派의 竹溪公(諱繼宗)은 忠烈公 12代孫으로 贈嘉善大夫吏曺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行安岳郡守를 하신분으로 司饔院奉事(諱曄) 楊口縣監(諱殷鼎)은 長子와 曾孫이다.위 종중은 천안시 병천면에 500년 세거하며 종중을 구성하여 위토를 마련하고 선조님 奉祀를 하고 있다.

종보(회보) 제작을 위한 원고 모집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싣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E-mail 또는 팩스. 우편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 출 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대구종친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 종친회는 2018년 1월 27일 11시 30분에 더 에스엘 하우스에서 제 38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사무국장 태공(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 1부 정기총회에서 식순에 의거, 경과 및 결산보고와 기타 안건토의 및 청장년회와 안김산악회 적극 참여 등 당부에 이어, 임원 개선으로 회장은 정묵(익)을 추대로, 사무국장은 연임으로,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였다. 제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 전회장 종묵(익)의 이임사에 이어, 제 20대 회장 정묵(익)은 제 19대 임원진의 노고와 업적에 감사를 드리고, 종친회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숭조, 효친, 화합의 행동지표를 실천하고, 특히 문중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선조님들의 위업을 선양하자 고 당부하였으며, 종친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하겠다고 인사하였다. 폐회 선언에 이어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종친회의 결속을 다졌으며, 타월과 기념품, 종친회 달력을 선물 하였다.

참석자

문수, 재욱, 윤천, 성묵, 호길, 효열, 정묵, 종묵, 실경, 준태, 옥배, 순회, 영화, 태화, 재권, 복술, 태영, 태남, 덕회, 희수, 태공, 영길, 민회, 재준, 재만, 수길, 은호, 영회, 원회, 명회, 승회, 재석, 중원 외 부녀회원 11명 등 44명 참석

봄바람에 실려 함께 보낸 친구

김태영(군) · 안사연

1394년(태조 3) 봄에 조선 개국 공신이자 우정승 벼슬에 오른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 1341~1407)이, 석간(石磵) 조운흘(趙云仡, 1332~1404)의 은신처인 아차산 아래 광나루 강마을[古垣城, 현 몽촌토성] 초막을 찾았다. 석간은 고려가 무너지기 직전인 1390년 서해도 관찰사를 그만두고 아차산 기슭 몽촌(夢村)에 초막을 짓고 은신하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1년간 강릉부사를 지내고 병을 핑계로 다시 몽촌으로 돌아 왔다. 갈대 삿갓에 허름한 삼베옷을 걸쳐 입고는 황소를 타고 유유자적 농사지으며 지낼 때에 우정승 김사형이 찾아와 벼슬을 권했던 것이다. 이들은 고려 우왕(禑王) 이전부터 밀직사(密直司)에서 같이 근무하며 지우(知友)로 지냈던 9살 차이의 망년우(忘年友) 관계이다.

"여보시게 석간(石磵), 이제 그만 초야에 묻혀 있고 함께 조정에 나가 정사(政事)를 같이 의논하지 않겠소?" 석간이 대꾸도 않고 앉아 있자, 상락(上洛)이 말하기를, "뻣뻣하고 고집센 이 늙은이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 어찌 더 길게 얘기하리오." 하고, 수레를 모는 자에게 재촉하여 돌아 갔다. 이 때에 석간은 친구를 떠나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지은 「봄과 함께 보낸 사람[送春日別人]」이라는 칠언절구이다. 1.2구에서는 현실 참여와 은둔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3.4구에서는 미련 남기지 말고 봄바람 처럼 떠나라는 석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봄과 함께 보낸 친구 [送春日別人] – 석간 조운흘

謫宦傷心涕淚揮 적환상심체루휘 물러난 신하 마음 아파 눈물 뿌리는데
送春兼復送人歸 송춘겸복송인귀 봄을 보내며 돌아가는 친구도 보낸다.
春風好去無留意 춘풍호거무유의 봄바람아 잘 가거라. 미련 두지 말고
久在人間學是非 구재인간학시비 인간 세상 오래 머물면 시름만 늘어난다.

출전 : 『동문선(東文選)』

또 하루는 개국공신 좌정승 조준(趙浚, 1346~1405)이 악공(樂工)들과 기녀(妓女)들을 대동하고 한강 가에 나왔다가 석간을 생각해 그의 몽촌초막(夢村草幕)을 찾았다. 석간은 허름한 베옷차림으로 나와 손님을 맞이했다. 이에 조준은 데리고 온 악공들에게 풍악을 울리게 하고 기녀들을 시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석간의 마음을 돌려 함께 관직에 나가자고 회유 했지만 석간은 오히려 귀머거리인양 눈을 감은 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니 머쓱해진 조정승이, "선생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 하며 풍악을 거두게 하고 차(茶)를 마시며 다음과 같은 5언 고시를 남겼다.

석간 조운흘의 서당에 쓰다(題趙石磵書堂 云仡) – 송당 조준

書室小如斗 서실소여두 서실은 작기가 한 말 정도인데
蓬蒿蔽風日 봉호폐풍일 쑥대로 바람 햇살 막아놓았네
寬於一天下 관어일천하 너그럽기는 온 천하 같은데
四壁圖書積 사벽도서적 사방 벽엔 도서로 쌓아 놓았네

矯矯南陽龍 교교남양용 씩씩하긴 남양 땅의 용과 같은데
高臥擁短褐 고와옹단갈 높이 누워 짧은 베옷 입고 있었지
蒼生望一起 창생망일기 백성들은 한 번 일어나기 바랐지만
軒冕等毛髮 헌면등모발 높은 벼슬 머리털 같이 보았네

출전 : 고전번역원『송당집』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요(簡要)하며, 조준은 과감하였다. 김사형의 지혜와 조준의 결단력이 조선 개국의 기틀을 잡는 중심에 있었다. 국가 운영에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한 가운데 김사형과 조준이 펼치고 있는 과도기 인사 정책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석간 조운흘 선생이 참외를 보내와서 멀리서나마 시로 감사드리다.

[石磵趙先生寄西瓜以詩遙謝 云仡] – 송당(松堂) 조준(趙浚)

玉斗流瓊液 옥두유경액 옥그릇에 찰랑찰랑 감미로운 액
來從處士家 래종처사가 처사(석간) 댁에서 보내 주셨네
年年塵土下 년년진토하 해마다 흙먼지 이는 세상에서
羞對邵平瓜 수대소평과 소평의 외 대하니 부끄럽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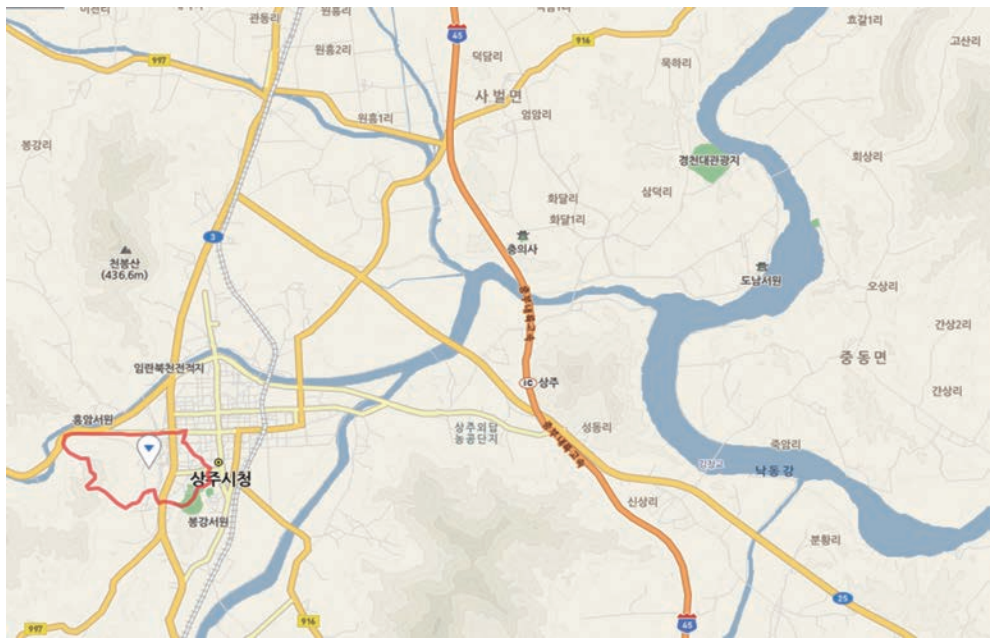
석간은 틈틈이 수확한 농산물을 두 정승에게 보내주기도 했는데. 1.2구는 수박을 보내준데 대한 고마움의 답시이다. 3.4구는 끊일새 없는 왕자의 난으로 어려운 시국의 중심에 서있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 했다.

석간 조운흘은 역사적 격동기에 자기 뜻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한 채 현실 참여와 은둔 사이에서 고민하다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고 몽촌 강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마쳤다. 그는 농사를 짓는 틈틈이 초가로 이은 정자에 앉아 시를 지었는데, 저서로는『석간집』이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편서『삼한시귀감 三韓詩龜鑑』이 전하는데, 고려시대 학자 12명의 시평도 기록해 놓았다. 그중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를 청담(淸談)하다고 평하여 훗날까지 많은 문인 학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조운흘의 생애가 말해주듯 고려 말의 전환기에 선 지식인의 형상이 잘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라고 하겠다.

석간 조운흘은 상락 김사형보다 9살, 평양 조준보다 14살 많다.

상주(上州) 옛 지명의 유래



▲ 상주시 낙양동과 낙동강

사벌은 고대어로서 새로운 땅,벌판,펄, 별, 미개척지,개척하여야 할 땅, 처녀지, 동쪽, 밝음, 태양,빛의 상징어이다.

한자어로 표기함으로서 고대언어는 표기와 발음과 의사 전달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고대 일단의 무리가 처녀지를 찾아서 동으로,동으로, 빙하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해가 떠 오르는 땅"을 이동 해온 증거이다.

사벌국(沙伐國)

BC 58 년경 지금의 영남지방의 상주라는 곳에는 사벌국이라는 씨족국가가 있었다.

철을 생산하여 왜(倭)와 대방군(帶方郡),마한(馬韓)에 수출을 하기도 한 고대 국가로서 오늘 날 낙동강의 이름의 유래지이기도 하다.

지금의 낙양이라는 마을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낙동강이라고 불러서 오늘날의 낙동강이 된 것이고 , 경상도라는 경주와 상주의 '경'과 '상'을 합쳐서 경상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것이다.

상산은 영남대로의 중심축이었다.

모든 길은 반드시 상산을 거쳐 문경새재를 거쳐 북쪽으로, 남으로는 낙동강을 통하여, 낙동강을 거쳐 지나가야만 하는 반도의 중심무대였다. 공검지라는 큰 못이 삼한시대에 이미 건립되었고 한반도의 김제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상주의 공검지(공갈못)라는 거대한 농경문화의 상징물이 건립된 것이다.

낙양(洛陽, loyang.net),사벌(沙伐, Sabul.com),상산(商山, Sangsan.com), 사불(沙弗,沙佛,Sabul.com),**상락(上落)**,상주(上州),상령(商嶺), 사량벌(沙梁伐),사나벌(沙那伐)은 모두 상주(尙州)의 고대 지명이다.

낙양(洛陽, loyang.net)은 현재 중국 본토의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성(城)으로서 고대 중국의 수도이며 고대 중국문명의 발상지이다.

그런데 한반도상에서는 낙양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은 오직 상주에 있는 동네 뿐이다. 사벌국은 이후 새로 생겨 난 백제와 마한,왜(倭,Japan),신라,고구려의 경계선상에서 중립국가로서 외교정책을 구사하다가 신라의 말발굽아래 짓밟힌 국가이다. 그러나 이는 내부의 혼란에 의한 것 일뿐 신라의 강한 군사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신라의 멸망을 촉발시킨 전국 민란의 발상지가 상주이다.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의 혁명(革命)(일명 원종,애노의 난亂)이 상주에서 일어남으로서 강하던 신라도 부패를 일삼으며 백성을 착취하다가 상주에서 일어난 호족출신인 원종(元宗)과 노예 또는 농민인 애노(哀奴)의 혁명(革命)으로 전국적인 민란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이고 이 난을 진압한 것은 신라병이 아닌 상주의 호족출신인 10세 소년의 덕택이다.

이는 신라가 전적으로 상주에 의한 힘으로 건국되고 이끌려져 왔다는 증거이다.

신라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또 하나의 힘은 후백제 견훤(고향: 사벌주 가은리: 현재의 문경시 가은리)이 상주에서 탄생함으로 시작된다.

태봉국 궁예왕의 부하인 고려 왕건이도 후백제왕 견훤과의 싸움을 상주에서 80% 이상이 전개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인물의 고장이라는 증거이다. 그만치 상주는 내우외환으로 백성은 고통을 많이 받았다.

상산은 아마 그 당시에 소중한 역사적 문화재와 민족의 기원을 기록한 서적등이 불타거나 유실, 많이 조작, 축소, 은폐, 왜곡되어졌을 것이다.

상주의 유래는 신라의 사벌국을 침략한 이후 국가의 하위이름인 주(州)라는 별칭을 붙임 으로서 오늘날 상주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다.

상산(商山)은 경상북도 서쪽에 위치하고 삼한시대에 진한의 영토였으나 신라 첨해왕 때 상주(上州)로, 진흥왕이 **상락군**으로 신문왕때 다시 사벌주로, 경덕왕때 와서 상주(尙州)로 하는등 많은 변천을 거쳤으며, 고려 성종때는 귀덕군이라 하였다.

후에 조선이 개국하여 1910년 상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上洛 封爵 및 封君을 받으신 先祖님

- ◆ 利請(이청) 上洛君
- ◆ 孝綏(효수) 上洛伯密直副使
- ◆ 孝組(효조) 左政丞上洛侯
- ◆ 方慶(방경) 上洛郡開國公 食邑一千戶 實封三百戶
- ◆ 忻(흔) 都僉議司事 上洛君
- ◆ 恂(순) 重大匡 上洛君
- ◆ 永暾(영돈) 僉議司事 上洛府院君
- ◆ 永煦(영후) 上洛侯(上柱國 福昌府院君)
- ◆ 士衡(사형) 門下右侍中 上洛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 ◆ 厚(후) 僉議評理上洛君
- ◆ 昴(묘) 平章事 上洛君
- ◆ 縝(진) 判慈惠院事 上洛伯
- ◆ 蕆(천) 領三司事 上洛君
- ◆ 宗淑(종숙) 上洛府院君
- ◆ 礩(질) 上洛府院君
- ◆ 紐(뉴) 號 上洛處士
- ◆ 忠甲(충갑) 贈輔祚功臣左贊成 上洛君
- ◆ 時敏(시민) 贈領議政 上洛府院君

2015 을미대동보에서 발췌 – 상근 –

金時敏將軍 6代 封君에 대한 考察

충렬공

- 11대손 충갑(忠甲) 上洛君(贈輔祚功臣左贊成)
- 12대손 시민(時敏) 上洛府院君(贈領議政)
- 13대손 치(緻) 安興君(吏曹參判)
- 14대손 득신(得臣) 安豊君(嘉善 同樞)
- 15대손 천주(天柱) 花恩君(吏曹判書)
- 16대손 가교(可敎) 東恩君(別提襲封)

2015 을미대동보에서 발췌 – 상근 –

옛 병풍 그림속에 숨어 있는 '고산정'

김태영(군) 안사연

1. 머리말

고산정(孤山亭)은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1212~1300) 선생이 관직에 나가기전, 학문에 전념하며 유상하던 정자다. 충렬공이 안동 풍산현 회곡촌[上洛村]에 대대로 살면서 명승지 가운데 한 곳인, 상고산(上孤山) 아래 정자를 짓고, 조부 민성(敏成)에게 학문을 익히며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정자 앞에는 아름다운 낙동강이 흐르고, 특히 맞은편 강가의 절벽 가장 우뚝한 지점이 상락대(上洛臺)인데,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에 봉해진 충렬공께서 무술을 연마하며 빼어난 경치를 즐겼다고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800년이 흐른, 오랜 세월 앞에 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록만 존재해 왔다. 그런데, '하외화병(河隈畫屛)'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고산정'의 위치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2. 하외화병(河隈畵屛)

'하외화병'의 정확한 명칭은 '하외상하낙강일대도(河隈上下洛江一帶圖)'이다. 이 그림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 선생의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이 정주목사로 재임 중에, 고향 하회의 강산(江山)이 몹시 그리워, 화공을 시켜 하회(河回)를 중심으로 낙동강 일대의 풍광을 그리게 했고, 그것을 8폭 병풍으로 만들어 고향 14년 선배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으로부터 서문을 받아 곁에 두고 감상하였던 것이다. 퇴계선생이 '하외화병'에 서문과 함께 부친 시이다.

洛上河隈擅勝名 낙동강가 하회마을 이름 높은 승지인데
公曾於此占鷗盟 님은 진작 이곳에서 자연과 벗했었지
幾年遊宦憑歸夢 벼슬살이 몇 해동안 돌아갈 꿈 꾸었던가
他日丹靑感列英 다른 날 이 그림에 뭇 사람 생각나리
滿意烟波常在目 뜻에 가득한 물결 언제고 눈에 삼삼
一毫榮辱可忘情 추호같은 영욕이야 쉽사리 잊으리라
因君起我江源興 님으로 인해 강호의 흥(興) 절로 이니
欲趁春風返舊耕 봄바람 따라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고파.
〈고전번역원 '퇴계집'〉

정주(定州)는 중국으로 내왕하는 사신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문명지(文明地)중 한 곳이었는데, 마침 중국에서 한림(翰林) 성헌(成憲)과 급사(給事) 왕새(王璽)가 사신으로 오게 되었다. 이 때가 1568년(선조1) 6월이었는데,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중추부사 정유길(鄭惟吉, 1515~1588)을 영위사(迎慰使)로, 이조판서 박순(朴淳, 1523~1589)을 원접사(遠接使)로,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김덕룡(金德龍, 1518~1571)을 접반사(接伴使)로, 사헌부 지평 이해수(李海壽, 1536~1599)와 교리 신응시(辛應時, 1532~1585)를 종사(從事)로, 하여 의주 용만으로 출영(出迎)케 하였다. 의주로 향하던 일행은 정주(定州)에서 하룻밤 쉬어가게 되는데, 손님을 맞이한 목사 류중영은 이 들에게 '하외화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 병풍을 본 제사(諸使)들은 아름다운 그림에 감탄하고 모두 즐거워하며 제영(題詠)을 남겼다.

3. 접반사 김덕룡과 영위사 정유길

평안도는 사신이 왕래하는 요충지로, 당시 이 지역 관찰사이던 김덕룡은 황제의 조명(詔命)을 받들고 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영접도감(迎接都監)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선조인 충렬공 김방경이 유상하던 정자 '고산정(孤山亭)'이 병풍 4번째 "수동(壽洞)"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충렬공 행장을 인쇄하여 반포(頒布)하기도 했으며 충렬공이 삼별초를 진압한 일로, '제 진도 용장성'이란 시문을 남겼으므로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 이날 행회(行會)에 모인 인사들은 화병(畫屛)을 보며 모두 완상(玩賞)하고 제영(題詠)을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덕룡도 틀림없이 선조 충렬공의 고산정에 대한 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문은 실전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1742년(영조18) 입암(立巖)의 7대손 양진당 류영(柳泳,1687~1761)이 현판 끝에다 쓴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란을 거치는 동안, 이미 병풍에 제영한 대부분의 시편(詩篇)들을 잃어버렸고, 다만 임당 정유길의 작품만 남아 있다'고 한 것만 보아도 이 화병의 운명을 짐작할 수 있다. 영위사 정유길 역시 자신의 선대(先代) 동래정씨 세거지(世居地)인 지보리(知保里)가 병풍 8번째 그림에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하였다. 정유길은 선조(先祖)의 시제(時祭)를 지내기 위해 지보리를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더욱 감명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그 당시 모였던 인사들이 제영한 시문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다.

洛江淸漲欲侵扉 낙동강 맑은 물이 넘쳐 사립문에 드니
千里帆檣到此稀 멀리서 돛단배 여기 오기 드믈어라
鳥嶺山川通氣候 조령(鳥嶺)의 산천엔 기후변화 심하고
龍宮樹木雜煙霏 용궁(龍宮)의 수목엔 안개가 자욱하여라

地從畫筆來窮塞 화필따라 그린 고향 땅이 변방에 와 있고
人在塵纏夢舊磯 사람이 속세 매이니 옛 낚시터가 꿈이어라
一曲桑麻知保里 강물이 감도는 상마(桑麻)의 지보리(知保里)를
何緣同駕鹿車歸 얽힌 인연으로 사슴수레 타고 함께 갈까나
*지보리는 예천 용궁의 지명

■ 김덕룡(金德龍, 1518~1571)

조선 중기의 문신, 안동인이며 충렬공 김방경의 후손으로 익원공(翼元公) 사형(士衡)의 7대손이다.자는 운보(雲甫), 호는 낙곡(駱谷), 할아버지는 이천부사 수경(壽卿)이고, 아버지는 화산군(花山君) 해(瀣)이며, 어머니는 신호(申皓)의 딸이다.아우 덕붕(德鵬) · 덕곤(德鵾)과 함께 3형제가 퇴계문인이며, 1546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청요직을 거치고, 동지중추부사 · 도승지 · 황해도 · 경기도 ·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한 이후, 개성유수를 지내고, 1571년 대사헌이 되었다. 평양감사 때 충렬공 김방경 행장을 인쇄하여 반포(頒布)하기도 하였으며, 충렬공이 삼별초를 진압한 일로, '제 진도 용장성'이란 시문을 남겼다.

遊魂海島敢猖狂 괴뢰(삼별초)가 진도에서 미쳐 날뛰며
建闕營城太陸梁 대궐짓고 성(城) 쌓으며 너무 방자해
我祖當年曾問罪 우리 선조(상락공) 그때의 죄를 물으니
至今人指古龍藏 지금 사람들이 옛 용장동을 가리키더라

■ 정유길(鄭惟吉, 1515~1588)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길원(吉元), 호는 임당(林塘). 난종(蘭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광필(光弼)이고, 아버지는 강화부사 복겸(福謙)이다.김상헌(金尙憲) · 김상용(金尙容)의 외할아버지이다.아들 창연(昌衍)은 좌의정까지 올랐다. 1538년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김주 · 이황 · 김인후 등과 함께 동호서당에서 사가독서 하였다.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예조판서 · 대제학 · 이조판서에 오르고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그 뒤 1583년에 우의정에 오르고, 그 이듬해 궤장(几杖)이 하사되어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1585년 좌의정이 되었다.넓은 도량을 가지고 있어, 큰 일에는 대의를 가지고 과감하게 이를 처결하였다.시문과 서예에 능해 임당체(林塘體)라는 평을 받았다. 작품에 <한기비韓琦碑>가 있고, 저서로 ≪임당유고 林塘遺稿≫가 있다.

4. 다시 모사(模寫)한 '하외화병'

아쉽게도 입암이 소장했던 병풍은 임진란과 병자란을 겪으면서 심하게 훼손되었고, 그로부터 270여년이 흐른 1827년 입암 류중영의 후손인 소헌(疎軒) 류철조(柳喆祚,1771~1842)가 강원도 고성군수(高城郡守)로 있을 당시, 강원도관찰사로 있던 정유길의 후손인 정원용(鄭元容, 1783~1873)과 만나게 된다. 좋은 인연을 맺었던 두 조상의 후손들이 다시 아름답게 만나자 자연스럽게 선조(先祖) 분들의 옛 날 고사(故事)가 이야기 되었고, 마침내 1828년 강원도 흡

곡현감(歙谷縣監)으로 와 있던 이의성(李義聲,1775~1833)이란 사람에게 부탁하여 병풍 두벌을 재현(再現)하게 하여 한 틀씩 소장한 것이 '하외상하낙강일대도(河隈上下洛江一帶圖)'이다.

이 병풍 그림의, 1곡(一曲)은 도산서원이며, 2곡(二曲)은 안동읍 전경이고, 3곡(三曲)은 학봉 김성일의 정자인 석문정(石門亭)과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의 정자인 연어헌(鳶魚軒)이 있는 풍경이다. 4곡(四曲)은 수동(壽洞)으로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정자가 있던 곳이다〈그림〉. 물론 그 뒤에는 서애 선생의 묘소와 그에 딸린 재사(齋舍)도 그곳에 들어서게 된다. 5곡(五曲)은 마애리의 기암절벽 망천(輞川)이며, 6곡(六曲)은 그림의 주인공 유중영의 고향 하회(河回)다. 7곡(七曲)은 구담(九潭)인데 광산김씨와 순천김씨가 세거한 곳이다. 8곡(八曲)은 지보(知保)로 예천 용궁에 속하며, 동래정씨의 세거지이다. 나머지 두 폭은 퇴계의 서문과 시, 유일하게 남은 임당 정유길의 시, 그리고 정원용의 발문이 적혀 있다. 그래서 모두 10폭이다. 이의성은 관리이면서도 당시의 이름난 문인화가(文人畫家)였다. 정원용이 1829년에 병풍 말미에 쓴 발문(跋文)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놓았으며, 현재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5. 하외화병 제4곡,수동(壽洞) – 고산정(孤山亭)

수동은 안동시 풍산읍 수리(水里) · 회곡동(檜谷洞) · 수곡(水谷) 일대를 말한다. 병풍 4번째 폭의 그림이 수동인데, 바로 상락촌(上洛村)의 배경이며, 상고산과 충렬공의 정자가 그려져 있는 곳으로 상락촌의 범위가 현재 회곡동 뿐만 아니라 수리. 수곡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는 정침(鄭寖)이 풍산 수리에 있는 진외가의 별장에 들어와 살았으므로 청주정씨 안동의 입향조가 되었다.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1629~1711)의 '영남잡록'에 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가 수동(壽洞)에 와서 "이 지역은 천하의 영웅이 나올 자리인데, 그런 인물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 고려의 상락공 김방경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또 의성 사촌(沙村) 입향조이신 감목관(監牧官) 김자첨(金子瞻,1369~1454)도 이곳에서 이거(移居)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수 백년이 흐른 지금 상락촌 주위의 경치도 많이 바뀌고, 수리에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묘소와 재사(齋舍)가 들어서 있다. 회곡동에는 충렬공의 유허비만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 준다.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시에...

上洛風流三百秋 상락공의 풍류는 삼백 년 전 일이거니
功名事業水東流 그 공명과 사업은 물처럼 흘러갔네
湖山歷數今何在 호산의 운수는 지금 어디 있는가
試向蒼波問白鷗 시험삼아 강물 향해 백구에게 물어본다

또, 학봉이 설월당 김부륜에게 준 시에

不堪塵事日紛昏 티끌 세상 일 날마다 못 견디게 분분한데
春夢依依上洛村 봄꿈 속에 상락촌의 모습은 흐릿하네
寄語福川同我來 복천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幾時相對故山樽 어느 때나 마주 앉아 고향 술을 마시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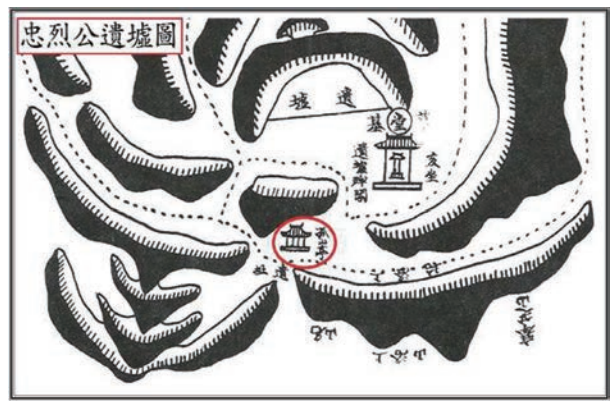
*상락촌은 금계(金溪) 아래 1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상락공(김방경)이 살던 곳이다.

■ 하외낙강상하일대도 제4곡 수동

6. 고산정(孤山亭)에 대한 영가지(永嘉誌) 기록

- 상고산(上孤山)은 안동부 서쪽 회곡촌 앞의 남양담(南陽潭) 위에 있다. 상락공 김방경이 그곳에 정자를 지었는데, 그 기초가 지금도 남아 있다.上孤山在府西檜谷村前南陽潭上 上洛公金方慶作亭其上基礎尙在
- 회곡촌 하계곡 서쪽 몇 리쯤에 있다. 중앙에 작은 시내가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들어간다. 소고산(小孤山)이 강과 시내가 합치는 곳에 있으니, 여기가 충렬공이 정자를 지은 곳이다. 마을 입구에 남쪽으로 향하는 큰 밭이 있는데 유전(流傳)하기를 이는 충렬공의 집터라고 한다. 충렬공은 대대로 여기 살면서 여러 대에 걸쳐 벼슬하였다. 문극공 설헌 정오와 대사간 설곡 정포는 외가이므로 와서 살았다. 檜谷村 在下桂谷西數里許 中有小澗西流入于洛 孤山在江磵合處 是忠烈公作亭處 村口有南向大田自古 流傳是忠烈公家基 忠烈公世居此地奕世冠冕 文克公雪軒鄭瑬 大司諫雪谷鄭誧以 外家來居焉

7. 고산정(孤山亭)에 대한 충렬공 유허도



※해좌 방향으로 유허 · 유허비각 · 고산정. 강건너 상락대. 상락산 옆으로 건지산(부사공파보)

▲위성 사진으로 본 수동 · 회곡리 · 상고산 · 상락대 · 고산정 위치

8. 맺는말

안동의 인물을 얘기할 때 충렬공 김방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충렬공은 벼슬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라는 중찬(中贊)과 첨의령(僉議令)의 자리까지 오른 명상(名相)이며, 고려말 몽고의 혹독한 지배하에서 군권을 장악하여 슬기롭게 나라를 구한 명장(名將)으로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작위와 식읍 1000호 식실봉 300호를 받고, 시호를 충렬(忠烈)로 받았다. 나라에서 신도비를 세웠는데, 문헌으로 전하는 신도비로는 최초이다. 그토록 유명했던 충렬공께서, 수동(壽洞)의 상락촌(上洛村)에서 주인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 수동은 안동김씨의 세거지(世居地)였으며, 충렬공이 16세에 관직에 나갈때까지 생장(生長)한 곳이다. 그 과정에서 상고산 아래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강학의 장소로, 자기성찰의 공간으로, 때론 찾아오는 벗들과 연회를 베풀었던 낭만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한 시대가 가지고 있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정자다. 이 고산정(孤山亭)이 '하외화병' 제4곡 수동(壽洞)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낙동강의 물줄기가 굽이굽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풍광이 잘 보이는 회곡나루(상고산) 언덕에 복원하자는 의견이다. 복원된 고산정을 통해 충렬공의 기상을 엿보며 안동김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문중들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역사유적탐방

연천 숭의전지(崇義殿址) 사적 제223호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

우리 안동김씨 문중에서 중시조(中始祖)로 모시고 세수(世數)를 헤아려 정하는 출발점이 되시는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은 고려의 명신(名臣)으로 추앙 받는 분이다.

아쉽게도 남북이 분단되고 고려의 수도 개경(개성)이 북한지역에 위치하다보니 고려시대의 유적이 남한에는 전무하다시피 하여 문화유산 답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경기도 북부에 고려 왕실의 사당이자 종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숭의전(崇義殿)이 있어 관심을 끈다.

비록 고려의 전 왕조를 모시지는 못하고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 네 왕만을 모셨지만 지금도 해마다 봄, 가을로 제향을 올리고 있어 오래전 조선에 멸망한 고려의 숨결을 느껴 볼 수 있으며 고려왕조에서 충신으로 꼽히는 명장, 명신 열 여섯분을 함께 모시고 있는데 그중에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할아버지가 계시니 문중에서도 수시로 제향에 참석함은 물론 숭의전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조선의 개국과 왕씨의 수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 고려의 왕손들과 그 후예, 일족들인 왕씨(王氏)들은 몰살에 가까운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전대왕조의 저항이나 모반을 우려한 새 왕조의 과도한 숙청이었는데 조선왕조가 안정되기 시작한 태종이나 문종대에 이르러서야 탄압정책을 중지하고 일부 복권시키거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폈다고 한다.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우왕, 창왕 모두가 신돈의 자식이라며 폐가입진(廢假立眞)을 내세워 이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7남 강씨부인 소생 방번이 결혼한 왕씨 사돈과 가까운 공양왕을 내세웠지만 막상 왕위에 오르자 공양왕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던듯 하다. 심지어 이성계 일파에 반대입장이었던 정몽주에 힘을 실어 주어 정도전등을 탄핵하게 하였으며, 이성계의 희망대로 순순히 양위(讓位)의 형식으로 자리를 물려주지도 않아서 결국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하고서야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후 왕씨들을 모반사건 등으로 엮어서 숙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씨 귀족들과 이들 지지세력이 다수를 이루었던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는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조선이 개국과 동시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된것도 전조(前朝)를 지지하는 개성민심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고려 태조묘(太祖廟)를 마련하다

역성혁명으로 새 왕조를 세운 이성계와 측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고려왕조를 온전히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려왕실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기에 즉위 후 반포한 교서를 통하여 7남 방번과 사돈이된 고려왕실의 후손 왕우(王瑀) 를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고 마전군(지금의 연천군 미산면 일대) 일대를 하사하여 고려 태조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사당을 지은 것은 아니고 마전면 아미산 아래 임진강변에 위치한 앙암사 (仰巖寺)라는 작은 절에 고려태조 왕건의 위패를 모셔와 봉안하니 아쉽고 급한대로 고려 태조묘(高麗太祖廟)가 건립된것인데, 앙암사는 왕건이 궁예의 수하 장수로 있으면서 도읍지 철원과 개성을 오가는 중간에 위치하여 자주 들렀으며 때로는 쉬어가던 곳으로 태조 왕건의 영정을 모시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원찰(願刹)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멸망시킨 전조(前朝)의 사당을 세우도록 한 것은 전왕조 지지세력, 즉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회유하고 이반되는 민심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며, 이는 주나라 성왕이 은나라 마지막왕 주왕의 이복형 미자를 송나라 땅에 봉해 선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를 주나라 왕실에서 대접했다는 '서경(書經)'에 실린 고사(故事)를 참조한 것으로 주나라가 은나라를 계승한것은 천명(天命)이라는 당위성과 정통성의 명분을 살린 것을 본따 조선도 천명으로 고려를 이어받은 것이라는 명분을 살리려고 한 일이다.

〈경기도 마전군 옛지도를 보면 아미산 아래 임진강변에 숭의전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일보DB)〉

■ 숭의전(崇義殿) 건립

이렇게 마련된 고려태조묘에는 태조 왕건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덕(功德)을 베푼 고려 왕들을 추가하기로 하여 1399년(정종 1)에 태조 왕건 외에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등 고려 8왕의 위패가 모셔지게 되었으며 개성에서 태조 왕건의 주상(鑄像)도 옮겨오니 부족하나마 고려의 왕실 사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종묘에는 5왕을 제사하는데 고려 사당에 8왕을 제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태조 왕건과 거란족을 물리친 현종, 원(元)을 배척하고 명(明)에 사대(事大)한 공민왕 3위만 모시도록 하였으나 다시 8위로 복위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세종때인 1424년(세종 6)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 4왕만을 봉향토록 하니 조선의 5왕보다 한단계 낮춘것이며 명칭도 묘(廟)에서 사(祠)로 바꾸어 '사위사(四位祠)'로 불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연천읍 서쪽에 있다는 사위사가 이를 말함이다.

이렇게 조선 개국이후에 어렵사리 고려태조 사당을 마련하고 후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고려왕실의 사당이 유지되는가 싶었지만 귀의군 왕우와 그 아들들로 이어지던 제향은 더 이상 후사를 잇지 못하였는지 그만 끊겨버렸으며 더 이상 살피고 돌보는 손길 없이 쇠락해져 사당이 빗물에 무너질 정도로 관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무엇보다 사당에 제사하고 관리할 봉사손(奉祀孫)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1452년(문종 2) 공주에서 성(姓)을 감추고 숨어살던 고려 현종의 후손인 왕우지를 찾아 왕순례(王循禮)로 개명토록 하고 부사(副使)로 임명하여 제사를 잇게 하였다. 그리고 주변에 터를 살피고 사당을 고쳐 새로이 건립하였으며 문종이 편액을 내렸다고 하니 비로소 지금의 숭의전(崇義殿)이 세워진 것이다. 그에 더하여 고려조에 충성하였던 배현경, 홍유, 복지겸, 신숭겸, 유금필,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조충, 김취려, 김방경, 안우, 김득배, 이방실, 정몽주 등 16명의 공신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 둘러보기

이렇게 지어진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수(改修)와 중수(重修)를 반복하는등 유지하여 왔으나, 6. 25전쟁으로 건물이 전소하였는바 1971년 이곳이 사적으로 지정된 다음해부터 재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숭의전은 지금 재건된 것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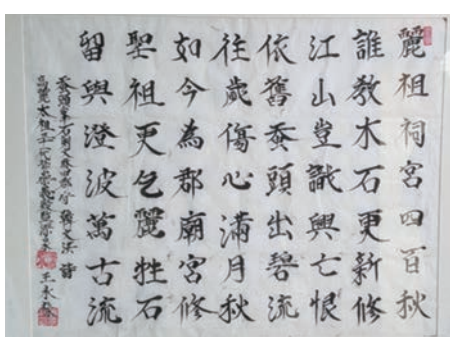
갖추어 복원을 해놓은 지금도 문화재청 명칭은 숭의전이 아니라 숭의전지(崇義殿址)로 터 지(址)를 붙여서 부르고 있다.
〈숭의전 전경(연천군청), 터(址)가 아니라 건물들이 갖추어졌으니 숭의전이라 부르는게 맞을듯 하다.〉

① 정전(正殿) 숭의전 : 고려 4왕의 위패를 모신 곳
② 이안청(移安廳) : 정전을 청소하거나 공사 등으로 위패를 잠시 옮겨 모시는 곳
③ 배신청(陪臣廳) : 고려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곳
④ 전사청(典祀廳) : 제례때 사용하는 제기를 보관하고, 제수를 준비하는 곳
⑤ 앙암재(仰巖齋) : 향, 축 등을 보관하며 제관들이 머물며 준비하는 곳

〈밖에서 삼문을 들어서면 숭의전과 이안청, 배신청이 한 곳에 모여 별도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으며, 정면이 정전 숭의전이다. 숭의전 내부에는 중앙에 고려 태조 왕건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단독으로 모셔져 있으며, 오른쪽에 2명, 왼쪽에 1명의 위패가 나뉘어져 모두 4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좌, 우로 모셔진 왕들이 현종, 문종, 원종중 누구인지는 식별이 어렵다.〉

〈숭의전 오른쪽 이안청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므로 평소에는 잠겨 있으며, 건물 앞에는 1789년(정조 13) 마전군수였던 한문홍이 숭의전 수리를 마치고 옛 왕조의 영화와 쇠락 속에 담긴 무상함을 담아 잠두봉 절벽에 새겼다는 칠언칠구를 액자에 넣어 놓았다.〉

칠언절구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숭의전을 지은 지가 사벽년이 되었는데 누구로 하여금 목석으로 새로 수리하게 하는고 강산이 어찌 흥망의 한을 알리오 의구한 잠두봉은 푸른 강물 위에 떠있구나
지난 세월 만월추에 마음 슬퍼하였거늘 지금은 이 고을 군수가 되어 묘궁을 수리 하였네
조선은 생석을 갖추어 고려 왕들을 제사토록 하였으니 아마도 숭의전은 징파강(임진강)과 더불어 길이 이어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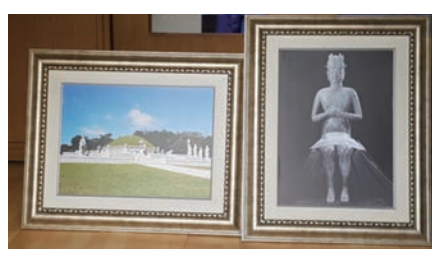


〈숭의전 앞쪽으로 나앉은 배신청은 고려왕조에 충성한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제향때는 이 곳에 각 공신들 후손들이 함께 부복하여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 안동김씨 문중에서도 당연히 참석하여 제향을 올린다.〉

〈서쪽 협문으로 나서면 제사관련 물품들을 보관하는 전사청(典祀廳)인데 정전 건물과는 구분되는 담장이 둘러져 있다.〉

〈다시 협문을 나서면 앙암재(仰巖齋), 옛날 앙암사 절집에서 연유한 이름인듯 한데 제관들이 머물며 제사 준비를 하는 곳이다. 왼쪽 방에는 북한에서 중수했다는 왕건릉의 모습과 왕건상으로 추정되는 발굴유적의 사진이 걸려 있다.〉

비록 건물이나 모셔진 위세는



예전만 못하다지만 잊혀진 왕조 고려의 종묘 유적을 만나니 감개가 무량하고, 고려조 충신으로 그곳에 함께 배향되신 충렬공 할아버지를 뵙게되니 반갑기 그지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멀리 경주를 떠나 홀로 계시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부침(浮沈)을 거듭하며 한 시대의 인물로 매겨진 조상님들이 멀리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숭의전 입구에는 왕건이 오가면서 마셨다는 어수정(御水井)이 있어 지금도 지나는 길손들에게 시원한 약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현대식(?)으로 다소 어설픈 하마비와 홍살문이 서 있어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은 북쪽에 남겨져 남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려의 흔적들, 그러다보니 숭의전(崇義殿)을 돌아보는 감회가 남다른데 하물며 조선 개국이래 숨죽이며 살아야했던 고려유민들이나 왕씨 후손들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지금은 해마다 개성왕씨종친회와 숭의전보존회가 주관하고 16충신의 후손들도 동참하여 봄, 가을로 제향을 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고려문화제' 축제도 이때 개최하여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으니 올해는 시간을 내어 한번씩 다녀오는게 어떨지 권해 드린다.

김신묵 (문온공파 총무이사)
안사연 (안동김씨 역사연구회) 활동중
내나라 문화유산 답사회 (BAND명칭) 회장
시니어조선 명예기자 (문화유산답사기 게재중)

/알림/

문영공종회 회의 개최 공고

文英公 宗會 2018년 회의 일정		
회장단 회의	2월 28일 수요일(오전11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29-1. 敬慕齋
이사 회의	3월 9일 금요일(오전11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29-1. 敬慕齋
정기 총회	3월 23일 금요일(오전11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관양동 1502-6)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전방 100m타워컨벤션 13층 컨벤션 홀(031-421-8000)
※ 이사회의 및 정기총회 전일에는 원거리 회원분에 한하여 敬慕齋 숙식이 가능합니다. (문의 : 010-3718-0066, 010-3753-0595)		

1/4분기 안사연 정기답사 공고

일시 : 3월 24일(토) 08:00
집결 : 사당역❶출구 공영주차장 (20~45인승 관광버스)
장소 : 구정승골(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원)

익원공 김사형 좌정승	제정공 신효창 증좌의정	충정공 정창손 영의정
문익공 이덕형 영의정	충정공 이준경 영의정	문충공 민희 좌의정
민암 우의정	수찬공 이수정 증영의정	지사공 이민성 증영의정

1/4분기 안사연 정기답사에 참가하실 분은 차량 준비와 자료집 등 원할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참가여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장 김영환 010-3363-0543
총무 김윤만 010-2299-6600

정정(訂正)합니다.

2017년 12일 15일 발행한 대종회보 제137호 16면「묘역정화업 헌성자」명단을 아래와 같이 도평의공파에서 군사공파로 바로 잡습니다.

◎ 5십만원 · 군사공파 : 문산(칠정문중회)
◎ 3십만원 · 군사공파 : 정읍종친회 · 양천종친회 · 광탄종친회
◎ 2십만원 · 군사공파 : 성묵(인천) · 중묵(문산) · 준회 · 홍수(광탄)
◎ 1십만원 · 군사공파 : 재신(음성) · 재연 · 준회 · 재순 · 근회 재근 · 완회 · 재구 · 민회(문산) · 용남 · 태영(평택) 희동 · 재이(강진) · 발용(장안) · 중회 · 재하(양천)

회비 및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01일 ~ 2018년 01월 31일)

◎ 임원회비
· 20만원 : 부회장 (按)영만, (郡)성묵, (典)춘교, (翼)재영
· 10만원 : 이 사 (翼)재택, (翼)윤묵, (典)용교, (典)용우

◎ 평생회비
· 20만원 : (郡)찬회, (翼)동선, (?)진식

◎ 통상회비(일반)
· 5만원 : (郡)태수, (翼)재선
· 3만원 : (提)규복, (翼)인식, (翼)규회
· 2만원 : (翼)용백, (?)정묵, (書)규태, (?)규팔, (翼)재택, (翼)원회, (翼)우회, (翼)수덕, (?)태웅, (翼)원식, (翼)태호

◎ 찬조금
· 10만원 : (?)동진

〈총합계: 231만 원〉

안동건물 구입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01월 31일 기준 ₩101,500,000-)

◎5천만원 (翼)익원공파종회
◎3천만원 (翼)석한 대종회장
◎1천만원 (都)동희
◎5백만원 (翼)강식
◎1백만원 (翼)영화, 영주종친회
◎5십만원 (都)정, (大)대호군공파종회, (按)판교공종회
◎3십만원 (翼)동수, 진현, 수석, 봉진, 영주청년회
◎2십만원 (翼)진흥
◎1십만원 (按)태준, (翼)영식, 관식, 용찬, 융교, 광교, 왕교, 준교, 용필, 황교, 상현, 창회, 성회

회비 납부 계좌 안내

많은 종친님들의 요청으로「지로용 회비 납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도 정보화시대에 따라 종친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회비를 아래 은행계좌로 수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 입금자 란에 반드시 소속 파를 명기하시거나 입금후 대종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종회사무처 ■ 전 화 : 02-2244-3717, 2244-3710
■ 팩 스 : 02-2243-1073
■ 이메일 : andongkimgu@naver.com

계좌번호 안내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회비전용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종회
안동건물성금	국민은행	356215-24-30643	안동김씨대종회

회비 종류			
평생회비	20만원	통상회비	2만원 이상
부회장회비	20만원	찬조금	
이사회비	10만원	헌성금	